



“진실 추구 향한 열정 더욱 뜨거워져야”

— 콘텐츠 혁신 완성 · DMB 정착에 주력 —



표완수 사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즐기 세포 파문으로 우리 과학계와 언론계가 함께 큰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진실 추구를 향한 우리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져야 한다” 며 정확한 사실 보도와 진실 추구를 강조하고, 상황이 혼미할수록 넓게 보고 길게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을 잃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표 사장은 또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 가운데서 무엇보다 콘텐츠 혁신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콘텐츠 혁신은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긴 했으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콘텐츠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 사장은 DMB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매체를 성공적으로 출

범시켜야 하는 일이 놓여있지만 이 두 가지 일에서 모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표 사장은 주가 5천원, 매출 1천억 원, 당기순익 1백억 원이라는 우리의 경영목표 ‘5-1-1’ 작전을 이미 50%이상 달성했고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길은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사장은 그러나 여기서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헝그리 정신’이라며 “이 헝그리 정신이야말로 YTN의 진정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이 귀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사실 보도에 더욱 힘쓸 것” - 노사공동 진상 규명 후 사과 방송 -



YTN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9일동안 황우석 교수 논문과 관련한 YTN의 보도 및 취재 경위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제기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공정방송위원회를 가동하고 사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방송위 조사결과 YTN 취재팀은 지난해 11월 14일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요청으로 복제소 ‘영롱이’의 혈액과 어미소의 체세포를 넘겨받아 한 연구기관에 ‘영롱이’의 진위 검증을 의뢰했고 며칠 뒤 어미소의 체세포가 손상돼 DNA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과

를 통보받았지만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취재기자는 복제소의 진위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체세포가 손상됐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YTN 취재팀은 황 교수 연구팀의 제의를 받고 즐기세포의 DNA 검증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황 교수 연구팀으로부터 즐기세포와 체세포, 모근 각 6개를 넘겨받아 고려대 법의학연구소에 직접 분석을 의뢰했고 나흘 뒤 연구소로부터 ‘즐기세포의 DNA 불일치’ 결과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황 교수팀이 시료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시 즐기세포 시료를 주겠다고 말해 방송을 하지 않았다. 또 미국에 있던 김선종 연구원을 인터뷰할 당시 취재기자의 항공료는 사후에 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박하게 출장을 가게됨에 따라 당시 보도국장인 취재기자에게 신용카드로 항공료를 지불하라고 했으나 황 교수팀에서 항공권을 미리 예약, 금액을 지불한 상태였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지 못했다. 항공료는 지난해 12월 6일 황 교수팀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미국 취재과정에서 숙박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YTN은 지난 1월 3일 저녁 7시 뉴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YTN은 사과문을 통해 YTN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고, 결과적으로 진실 은폐에 도움을 주거나 진실 규명에 소홀했다는 점을 깊이 자성하고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실 보도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임금 피크제 도입



노사는 일반직 사원의 정년을 58세로 단일화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지난 12월 22일 체결했다.

노사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현행 55세인 차장급 이하 일반직 사원의 정년을 58세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만 55세에는 피크 연봉의 80%를 받고, 만 56세에는 피크 연봉의 70%를, 만 57세에는 피크 연봉의 60%를 각각 지급받도록 했다.

YTN 노사는 또 2006년도 임금을 기본급 4%(총액대비 3.3%)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1월호 목차

- 2 | ▶ 사장 신년사
- 3 | ▶ YTN에 바란다 - 수준 높은 뉴스로 정면 승부를 펼쳐야
- 4 | ▶ 위기의 쌀, 그 생존의 조건 -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쌀
- 5 | ▶ 사내기고 - DMB의 새로운 이름을 위하여
- 6 | ▶ 프로그램 탐방 - 미리 보는 오늘 ‘뉴스 오늘’
- 7 | ▶ 프로그램 탐방 - 뉴스Q는 YTN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 8 | ▶ 개띠에게 듣는다 - 풍성하고 성명무 무지개 빛을 전하고 싶다
- 9 | ▶ 해외리포터에게 듣는다 -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고 있다
- 10 | ▶ ‘N 서울타워’ - 새로 태어난 서울타워

사장 신년사

병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새아침에 우리가 늘 다짐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정확한 사실보도와 진실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지금 줄기세포 파문으로 우리 과학계와 언론계가 함께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진실 추구를 향한 우리의 열정은 더욱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혼미할수록 넓게 보고 깊게 봐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을 잃지 말도록 합시다. 이밖에도 올 한 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콘텐츠 혁신을 완성해야 합니다. 콘텐츠 혁신은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긴 했으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콘텐츠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 매진합시다.

이밖에도 DMB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매체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켜야 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5-1-1작전을 아시죠? 주가 5천원, 매출 1천억 원, 당기 순익 1백억 원이라는 우리의 경영목표 말입니다. 우리는 이 경영목표를 이미 50%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길은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헝그리 정신'입니다. 축구 명장 히딩크는 "I am still hungry" 라고 여러 차례 외쳤고, 애플컴퓨터를 설립한 Steve Jobs는 성공한 다음에도 "Stay hungry"를 강조했습니다. 이 헝그리 정신이야말로 YTN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이 귀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언론이 추구하는 진실도 배고픈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YTN 사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아침 사장 표완수

'더불어 사는 우리, 함께 가는 대한민국' - 2006 연중캠페인 -



YTN은 새해 2006년을 "사회 양극화 개선의 해"로 정하고 <더불어 사는 우리,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새해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포용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방송 - 이를 위해 YTN은 계층간·세대간·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포용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방송에 힘쓰겠다.

서로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방송 - YTN은 서로 나누고 서로 베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방송 역량을 집중하겠다.

신성장 동력을 찾는 방송 - YTN은 과학 기술과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각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YTN단신

YTN 미디어 일부 지분 매각



YTN은 자회사인 YTN 미디어의 일부 지분을 엔터테인먼트업체인 IHQ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YTN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의 YTN 미디어 지분 42.31% 가운데 28%인 백7만여주를 IHQ에 매각했다.

YTN은 보도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DMB와 방송장비의 디지털 전환 등 앞으로 예상되는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대주주인 IHQ가 YTN미디어의 경영을 맡게되지만 회사명칭 'YTN미디어'는 당분간 유지되며 YTN과 YTN DMB가 YTN미디어의 콘텐츠를 계속 공급받을 예정이다.

'사이언스+' 2005년 국회과학기술대상 수상



2004년 3월부터 방송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일일 과학프로그램인 YTN '사이언스+'가 2005년 국회과학기술 대상 수상했다. 12월 9일 오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이해봉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YTN과 함께 지난 9월 세계최초로 DNA 3차원구조를 규명해 네이처지 표지를 장식한 성균관대 김경규 교수와 중앙대 김양근 교수가 올 해의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올 해로 5년째를 맞는 국회과학기술 대상은 매년 과학기술발전에 공을 세운 과학자와 단체를 선발해 시상한다.

YTN 시청자위원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YTN 시청자 위원회는 회의비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YTN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 위원장인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세중 공동모금회 회장에게 성금 7백만 원을 전달했다. YTN 시청자 위원회는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돼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YTN서울타워 직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타워운영부 직원들은 2005년 12월 29일 용산구 후암동소재 혜심원 (불우어린이 35명)과 해방촌소재 모



자원(미혼모 62명)을 방문해 동내의 97벌과 라면 140박스를 전달했다. 이들 두 기관에 전달한 생필품은 341만5,000원어치로 이는 서울타워 영업장에 비치하였던 금동미륵불상 불전 함에 모금된 현금으로 마련했다.

원종호 기자, 방송카메라기자 보도부문 최우수상



원종호 기자가 제19회 방송카메라기자상에 '이국 마지막 왕손 영결식'으로 보도 뉴스 부문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2월 15일 여의도 산은캐피탈에서 열렸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대상은 한 해 동안 투철한 기자정신을 바탕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TV카메라 기자에게 시상, 이를 통해 카메라기자의 자기진작과 TV 보도영상의 발전을 위해 1988년부터 제정했다.

YTN에 바란다

“질 높은 뉴스로 정면승부”



김영석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무척이나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2006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이 올 한 해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방송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올 해는 새해 덕담만을 이야기하기에는 마음이 무척 무겁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해 말에 있었던 황우석교수 관련 줄기세포 파문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논란의 와중에서 YTN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을 혼돈과 좌절로 정신없게 만들었던 지난 연말의 황우석교수 관련 보도 파문은 한국 저널리즘의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오점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언론이 취재대상과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취재 방법은 어떠한지, 객관적 진실 탐구 과정에서 주관적인 주변의 여론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뉴스 전문 채널인 YTN에게도 이번의 아픈 경험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995년 3월 1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YTN은 올해로 11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YTN이 방송 저널리즘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은 가히 경이적이라 할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열악한 환경과 누적된 적자 경영으로 존폐의 위기까지 맞았던 초창기와 비교하여 오늘의 YTN은 한국 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케이블 텔레비전 산업 전체를 여기까지 끌어 올리는데 YTN이 가장 중요한 견인차의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YTN이 한국의 미디어 시장 전반에 기여한 공로도 무척 지대하다고 평가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

지난 10년이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디어 시장은

지난 10년에 비하여 훨씬 어려운 상황이 예견됩니다. 그동안 케이블 텔레비전의 보도 분야는 경쟁자의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법적 규제의 보호 하에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 작금의 미디어 환경변화는 이런 보호를 더 이상 허용하지 못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 융합의 디지털 혁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규제의 명분이 설득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YTN을 포함한 케이블 텔레비전 산업 전체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시청률로 비교 해 보았을 때 현재 지상파방송과 케이블의 비율이 약 2:1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케이블의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상파 및 위성 DMB의 시작, 현재 논란 중에 있는 IPTV 등을 위시하여 새로운 미디어들이 설 새 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YTN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수년간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몇 개의 프로그램 공급업자를 계열사로 편입 시켰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1일부터 지상파 DMB 방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미디어 다각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승부의 관건”

채널의 수가 무한정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양질의 콘텐츠를 누가 제공할 수가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라고 볼 때 매우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4개의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YTN DMB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전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시장 주인은 프로그램의 제작자나 공급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소비자 혹은 이용자들입니다.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채널 중에서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만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사용하기가 편리한 단말기를 통하여 선택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채널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한정된 프로그램을 반 강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YTN의 생존전략에 대한 해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YTN이 여러 계열회사를 갖고 있지만 주력은 역시 뉴스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뉴스 프로그램으로 정면 승부를 펼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시청

자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의 정확성, 완전성, 심층성, 전문성을 서로 다른 매체들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사활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의 줄기세포 관련 파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많은 문제들이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 전달자들의 글로벌 스탠더드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정직성, 최고의 자산”

오늘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특히 전문성과 정직성이 최선의 자산이라고 여겨집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미디어 수용자들이 서로 고립화 되어서 조직화 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접할 수 있는 매체 및 정보가 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 전달자는 수용자들에 비하여 절대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용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정보이든시간에 손쉽게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순식간에 다른 대중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의 수용자들이 정보의 소비자이자 동시에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혁명적 패러다임이 새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변화 속에서 YTN이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뉴스의 전문성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일반적이거나 피상적인 뉴스로는 높아진 시청자의 취향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현상을 보도함에 있어서 국제적 감각과 역사적식이 투영된 전문가적 시각이 반영되어야만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대에는 투명성과 정직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개인, 조직, 기관을 막론하고 한 순간의 신뢰추락으로 그동안 쌓아 놓았던 모든 명예와 명성을 한 순간에 날려 버릴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YTN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뉴스 전문 채널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 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여온 YTN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직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국의 대표적 뉴스 전문 채널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게시판

연말포상

- ▶ 올해의 YTN 대상 YTN/DMB팀
- ▶ 올해의 최우수 프로그램상 홍상희·이선아(기동취재부), 노종면(앵커팀), 이동규(영상취재팀) YTN 긴급보고 「해의원정 이식」
- ▶ 특별상 사사편찬팀, 콘텐츠혁신팀, 제작기술부 카메라팀
- ▶ 공로상 최유석(기획팀), 강계현(디지털기획팀), 김대천·박현욱·이선희·장태만(타워운영부), 원경태 차장대우(뉴스총괄단), 김신영(편성운영팀), 유재복 차장대우(정치부), 박동일(대전지국), 방병삼 뉴스2팀장, 정지원(그래픽팀), 강재환·하

- 성준(영상취재팀), 유희성·이재우(기술관리부), 김한철·김용구 차장·이병문(제작기술부), 남궁용(마케팅1부), 김명섭(마케팅2부), 이동열(문화사업팀)
- ▶ 모범사원상 유환홍(뉴미디어팀), 신은영(디지털기획팀), 강경심(총무부), 김진웅(타워운영부), 조남규(인력관리팀), 박정인(방송행정팀), 신성원(편성운영팀), 김세호·김재형(기동취재부), 정병화(정치부), 박홍구(경제부), 김명우·김수진(사회부), 이문석(대전지국), 서봉국(스포츠부), 이지연(국제부), 김선희(뉴스6팀), 성문규(앵커팀), 변재철(그래픽팀), 이동형·김태형(영상취재팀), 손준수(영상편집팀), 박진수(영상기획팀), 김형욱(기술관리부), 문석호 차장대우(제작기술부), 김민태(중계부), 이병우(마케팅기획부)
- ▶ 감사패

- 남원희(주)어스 커뮤니케이션 대표, 신준섭 YTN 해외리porter, 손문수 파워콤 대구지사 팀장, 조항임 미디어컴, 김성진 부산영업소, 최인수(주)우리넷 방송제작팀 본부장, 최병민(주)한국케이블 TV나라방송 대표이사 회장, 윤주옥 총무부
- 4/4분기 포상
- ▶ 특종상 금상 한원상 차장대우(영상취재팀), 황보선(기동취재부) 아소탄광, 조선인 희생자 유골 발굴 보도
- ▶ 특종상 은상 이만수·권준기·구수분(기동취재부) 디지털도어록 개폐 하점 보도 김진우·임장혁·김석순(기동취재부) 달성터널 미사일 탑재차량 화재 보도
- ▶ 특종상 동상 김석순·이지은·구수분(기동취재부) KT·KTF

- 간 자사주 매입 의혹 보도
- 우장균 차장대우(문화부) 동인문학상 수상작 발표 시비 보도
- ▶ 우수프로그램상 황보선(기동취재부), 유현주(앵커팀), 박진수(영상기획팀) 「로버트김의 귀향」 특집2부작 해외방송팀 「글로벌코리아」 12.30
- 입사 전병곤 차장대우 마케팅2부, 최종인 마케팅1부 1.2
- 정보 문중선 부장대우 방송심의팀 12.24 / 신광호 재무회계팀장(주)YTN미디어 파견 해체 12.29
- 결혼 임준석 차장대우(제작기술부) 1.13
- 부음 최동숙(총무부) 부친상 12.13

위기의 쌀, 그 생존의 조건 - 제작기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쌀



2백 년 전 비교 우위를 주장했던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D. Ricardo)가 쌀 시장 추가개방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작금의 한국 상황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충고할 지 모를 일이다.

“한국은 쌀 산업을 포기하고 대신 경쟁력 있는 반도체를 중국이나 미국에 팔아 그 돈으로 쌀을 사먹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 같은 견해는 현실의 경제에서 분명 타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부의 상당 부분이 무역을 통해 창출해 나가는 국가는 더욱 그러하다. 19세기 초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 산업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에서 자유주의 물결이 득세한 이후 다시 2세기 만에 세계는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치열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WTO를 내세운 자유무역의 관계 속에서는 쌀도 결국은 수많은 상품 가운데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처럼 명확한 명제는 상품에 대한 부가적인 의미부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 떠돌고 있는 다양한 패러다임은 지극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쌀과 자동차, 반도체를 하나의 등렬화된 표식위에 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식량안보’의 논리도 귀담아 받아들일 대목이다. 리카도식 논리를 따른다면 미국과 러시아는 생산비용을 이유로 어느 한쪽이 전략무기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논제에 대한 고민이 쌀 특집을 기획하게 된 맹아인 셈이다.

쌀 특집은 10월부터 석 달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지구의 북반구는 이미 수확 철에 접어들었고 시간은 다급했다. 취재팀은 이강문 PD와 조용원 선배, 그리고 최윤석 기자 이렇게 4명으로 꾸려졌다. 우선 취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중국의 해외취재팀에 들어갔다. 10월 중순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해외취재는 일본과 타이완, 호주, 미국을 거쳐 한 달 여간 진행됐다. 초겨울과 초여름의 날씨를 오갔다.

해외취재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논두렁, 밭두렁’을 찾아다니는 취재다. 호주의 농업도시인 리튼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인근의 논을 헤집고 다니다 보면 얼굴이 금방 새카맣게 타기 마련이다. 특히 카메라 기자의 고생이 많았다. 여름철로 치닫는 호주의 농촌에서 구름 한점 없이 내리쬐는 태양은 이방인에 나오는 주인공인 피르소가 살인의 동기가 태양이었다고 한 말을 공감하게 했다. 그만큼 눈부시고 뜨거웠다.

취재국가의 광활한 대지는 부러웠다. 평균 경작규모가 1헥타르에도 못 미치는 우리 농촌과 지평선이 보이

는 그곳까지가 한 농가의 땅인 이들 국가와의 경쟁은 애당초 잘못된 출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르크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쳤지만 실상은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세상이 됐고 쌀을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도 역시 예외가 아니구나 싶었다.

취재는 중국, 미국, 호주 등 쌀 수출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취재에 가장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쌀의 품질에 관련한 지독하리만큼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수입 쌀이 발붙일 곳이 없었다. 특히 수확이후의 저장이나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는 단연코 세계 최고였다. 일본이 쌀 시장을 완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쌀 시장을 지킬 수 있었던 원천적인 힘의 토대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몇 달 뒤면 수입쌀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고 농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취재를 통해 우리 쌀 산업이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다. 최근 들어 ‘탑 라이스’ 생산단지가 조성되고 우리도 일본처럼 저온저장 시설 확충 등 수확 이후의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입맛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인 것이다.

우리의 쌀 산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되어서도 안 된다. 경제적 잣대로 보더라도 주식인 쌀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우리 쌀은 수입쌀의 거센 파고를 충분히 넘을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그 같은 잠재력을 현실에서 어떻게 투영해 낼지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몫이다.

김용섭(경제부)

사내기고

DMB의 새로운 이름을 위하여!

DMB가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약자임은 부연의 필요가 없을 만큼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실제 DMB를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 DMB란 말은 그때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여러 종류의 유머러스한 약어로 쓰여 왔다. DMB 전망에 지나친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던 때, DMB는 ‘대[DI]충-만[M]들어도 되는-방[BI]송’이나, ‘돈-많이 버는-방송’의 약자였다. 반대로 급변하는 IT기술 속의 무한경쟁을 우려한 비관론자들은 DMB를 일컬어 ‘돈-많이 쓰는-방송’ 또는 ‘돈만-먹는-방송’이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DMB는 배고픈 자에게 ‘떡볶이-만두-비빔밥’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 ‘들입다-마시고-뺏자’의 약자임을 주장하는 술꾼들에게 건배를 외치는 구호로 사용되기도 했다.

DMB가 무엇이든, 중요한 점은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첫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걸어 다니며 방송을 즐길 수 있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한 첫 미디어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새해 벽두 날아든 ‘지상파 DMB폰의 유통 개시’ 소식은 오는 4월로 예정된 ‘휴대전화 보조금 허용’과 맞물리면서 올 한해를 ‘DMB 원년의 해’로 만들 것임을 예고했다. 신개념의 첨단 DMB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뿐 아니라, 최근 방송위원회 회를 중심으로 보조를 높이고 있는 ‘지상파 DMB 전국화 계획’은 비수도권 시청자들에게도 뉴미디어를 선보일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부연하자면, ‘DMB 열풍’은 올해 대한민국 방송계의 화두가 될 것이란 얘기다.

물론 이 열풍의 한 가운데에는 YTN DMB가 있을 것이다. 비디오채널 @YTN[마이티엔]은 DMB시청자들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열풍을 주도할 것이다. 재전송 위주의 기존 지상파들이나, 일천한 방송 경험의 신규사업자들을 따돌리고, DMB의 1등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다.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박지성 출신 경기를 선보이고, 연예정보나 패션관련 프로그램 등 YTN이 다소 소홀했던 콘텐츠를 보강했다. DMB 시청 상황에 어울리는 DMB 전용 뉴스는 물론 ‘손 안의 점심메뉴’나 ‘생생 뉴스 잉글리시’ 등 DMB만의 신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들도 열풍을 이끌겠다는 태세다.

데이터채널 NBEEN[엔빈]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 ‘Never Been’이란 이름 뜻 그대로 아직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간편한 무선인터넷’이 다양한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 뉴스와 스포츠, 증권, 교육, 구인구직 등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만화나 유머 등 재미를 위한 콘텐츠들도 준비되고 있다. 아쉽게도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늑장(?)’ 덕분에, 일반 시청자가 NBEEN을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경쟁사들을 포함한 데이터방송 관계자들은 이미 NBEEN의 리딩 파워를 어느 정도씩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동망을 활용한 양방향 서비스나 교통정보 서비스인 TTI 서비스 등이 본격화되는 속도에 따라선, 데이터방송이 예상보다 일찍 DMB의 캐시카우가 될지도 모른다.

개국을 준비하는 동안 나의 메신저 닉네임은 [I'll Do My Best]였고, 난 이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이제 DMB 열풍의 해 2006년, 다시 한 번 이 약속을 이룰 외쳐야 할 듯싶다. 그래서 이 문장의 시제 will do가 did로 바뀌고, 또 YTN 모든 이들의 Did-My-Best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루고 나면, 호기스레 그 이름을 또다시 바꿔 부르고 싶다. “YTN DMB는 YTN 도[DI]약을 위한 밑[M]거름이 된 방[BI]송이라고.”

김정훈 DMB 데이터서비스팀장

미리 보는 오늘 - '뉴스 오늘'



이름 짓기 힘들었습니다.

지난 11월7일 출범한 6개의 대형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뉴스 오늘'의 이름이 가장 늦게 확정됐다. '뉴스 나이트'와 '뉴스 오늘'을 제외한 4개의 프로그램의 경우, 전부터 쓰던 이름이 워낙 훌륭해 바꾸지 않고 계속 쓰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름 좀 늦게 정해진 게 무슨 애깃거리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작팀에게는 '뉴스 오늘'이란 이름이 기특하기만 하다. 자식 낳고 어른들과 신경전 벌인 끝에 자기들 뜻대로 이름을 정한 다음 '음 역시 잘 지었어. 내 새끼 이름이 최고야!' 하며 흐뭇해하는 철부지 부모의 심정일 게다.

왜 '오늘'인가?

돌이켜보면 '뉴스 오늘'이란 프로그램 이름은 좀 이상하게 들렸던 것 같다. 어느 분 표현을 빌면 '갓 쓰고, 구두 신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외래어와 우리말이 섞여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오늘'이란 단어를 꼭 쓰고 싶었다. '08시부터 10시까지' 뉴스를 책임지라는 명을 받고 '이 시간엔 어떤 뉴스가 통할까' 하고 고민한 끝에 이 무렵이 '오늘'을 시작하는 시간대라는 점에 주목을 했다. '오늘'에 관한 이야기, 즉 '오늘은 어떤 날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뉴스를 만들려면 이름에 '오늘'이 꼭 들어가야겠다는 게 제작진의 생각이었는데 이를 잊본들이 흔쾌히(?) 받아들인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뉴스 오늘'이 방송되는 시간대의 특성은 첫째, 어제와 오늘 뉴스가 혼재돼 있으며 둘째, 오늘의 이슈가 태어나기 위해 꿈틀거리는 시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놓고 보니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두 시간 동안 뉴스를 꾸러가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난감한 특성'이다. 다시 말하면 뉴스거리, 즉 뉴스의 발생이 매우 적은 시간대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사장님, 다른 시간대로 바꿔 주세요!'라고 할 용기도 없고, 명분도 없어서 고민 끝에 저녁 종합뉴스를 12시간쯤 '확' 앞당겨 방송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뉴스가 이슈가 될 것인지 전망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예측 가능한 '오

늘'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바로 '뉴스 오늘'을 만드는 사람들의 목표이자 편집 방향이다. 이를 위해 '오늘의 이슈'와 '취재브리핑', '오늘의 일정', '개장박두' 등 이름만 들어도 무얼 말하려는지 알 수 있는 코너를 곳곳에 배치했으며, 기사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고르고, 배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 오늘'의 콘텐츠

-오늘의 이슈

저녁 종합뉴스를 12시간 앞당긴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물론 불가능하다. 세상에 예상, 전망만큼 힘들고 책임이 요구되는 일도 드물다. 특히 요즘같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되고, 뉴스거리가 쏟아지는 세상엔 특히 그렇다. 하지만 어제 뉴스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오늘의 주요 일정을 뒤지고, 기사와 기사의 상관관계를 따지다 보면 오늘은 대략 이런 뉴스가 큰 뉴스가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4개가 결정된다.

-취재브리핑

취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기사나 데스크를 통해 취재할 아이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취재 방향 등을 듣는 순서로 앵커와 기자가 일문일답식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오늘 뉴스의 일정과 관전 포인트를 시청자에게 전달한다.

-세상만사(世上萬事)

사실 '뉴스 오늘'은 매일 서너 개의 특종을 하고 있다. 물 건너온 뉴스, 즉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영상 뉴스를 전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다양하다고 자부한다. 밤새 들어온 외신 화면을 살살이 뒤져 세상 사람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담은 영상 구성 코너가 세상만사다.

-영상퀴즈

화면에 담긴 재미있고, 특이하고, 기발한 장면을 일

반적인 뉴스 전달 방식이 아닌 '퀴즈' 형식을 통해 메시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시청자는 정답이 궁금하기 때문에 4부가 기다려진다.

-개장박두(開場迫頭)

장(증시)이 열리기 전 상황에서 어제의 증시와 해외 증시를 최종 분석하고, 오늘의 장을 전망하는 코너로 '식상'한 객장 자료화면을 한 것도 쓰지 않겠다는 각오로 분석과 전망, 투자 포인트 등을 자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돈이 되는' 코너다.

-말 vs 말씀

'말'이 곧 뉴스가 되는 세상. "그렇구나...", "저런..." 한마디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뉴스 속 인물들의 화제의 발언과 발언 배경을 자막으로 정리해 앵커가 내레이션으로 전달한다. 얘기는 되는데 그림이 없어 방송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뉴스 오늘'에서 만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획한 코너다.

-신문마다 다르다(?)

한 아이템을 다루는 방법도 언론사마다 다르다. 주요 뉴스를 조각들이 어떤 관점에서 다루었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1. 요즘 뉴스 참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다루지는 용어도 어렵고, 거두절미하고 전달되는 뉴스의 홍수 속에 시청자는 당황스럽습니다. 제작진은 '어렵듯이' 아닌 TV뉴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기사를 단순 배열하는 게 아닌 '뉴스상식'과 '이슈추적', '뉴스인물' 등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기사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뉴스 오늘'을 보면 "아하 그렇구나! 그런 얘기였네!"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2. 저녁 때 밥상머리에서 "오늘의 뉴스는 '뉴스 오늘'에서 다 봤다. TV 끄고, 밥 먹자"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YTN엔 저녁 밥 시간대 2시간 뉴스 없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3. YTN이 존재하는 날까지 '뉴스 오늘'이란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도록 '명품 뉴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퀴즈〉 이 글에서 '오늘'이란 단어가 몇 번 쓰였을까요?

방병삼 뉴스 2팀장



“뉴스Q는 YTN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뉴스Q가 뭐예요?]

뉴스Q의 Q는 무슨 뜻일까요?

처음 프로그램이 생길 때는 Question이라는 뜻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Question)이 곧 뉴스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Q는 나아가 Quality 또는 Queen의 뜻으로도 불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뉴스의 '품질' (Quality)을 한 차원 높이겠다는 의욕의 상징입니다.

뉴스중의 뉴스, 기품 있고 아름다운 뉴스의 '여왕' (Queen)이 되고자 하는 이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뉴스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뉴스Q는 어떤 뉴스?]

뉴스Q는 저녁 종합뉴스입니다.

방송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정확한 시작 시각은 4시 58분)

매일 매일 이 시간이 되면 하루 종일 발생한 뉴스들이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뉴스Q는 채도하는 뉴스들을 보기 좋고 듣기 좋게 정리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뉴스들만을 골라서 시청자들에게 선사합니다. 잠시라도 뉴스Q를 보면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움직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뉴스Q는 살아 있습니다]

뉴스Q는 문자 그대로 '뉴스'를 좋아합니다.

방금 터진 뜨끈뜨끈한 소식을 즐깁니다.

뉴스Q가 방송되는 시간에 아직 상황이 진행중인 뉴스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현장을 연결해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논란이 되는 쟁점은 찬반 양측이 나와 직접 논쟁하도록 합니다.

뉴스Q는 뉴스를 전해주지만 동시에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뉴스Q는 재미있습니다]

뉴스Q는 새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뉴스와 관련된 소품을 직접 스튜디오로 가져와 요모조모 보여주기도 합니다.

딱딱하고 거친 뉴스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립니다. 뉴스가 배운 자들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이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흥미나 단순화를 위해 결코 보도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뉴스Q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합니다.]

뉴스Q는 낮이 밤으로 바뀌는 시간대에 방송됩니다. 빛이 어둠으로 대체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자연의 신비로운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때쯤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각자 원래의 보금자리로 돌아갑니다.

뉴스Q는 이런 자연과 사람의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교통과 날씨처럼 생활과 밀접한 소식들을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서울시내의 주요 도로위에 설치된 수백 개의 CCTV 화면은 이런 생각의 바탕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흩어져 있는 CCTV는 뉴스Q의 또 다른 '눈'입니다.

[뉴스Q를 만드는 사람들]

당연히 뉴스팀의 PD와 앵커라구요?

땡! 아닙니다.

뉴스Q는 YTN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드는 뉴스입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YTN의 기자들이 없다면 뉴스Q는 탄생할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섭외담당 유투권 기자의 빛나는 어시스트가 있어서 뉴스Q의 Quality는 높아집니다.

뉴스Q는 부조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PD와 엔지니어가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만들어집니다. 영상을 공급하는 영상 취재 및 편집 기자들 그리고 중계요원이 없다면 뉴스Q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래픽의 미술사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뉴스Q는 당장 '오아시스 없는 사막'으로 전락할 겁니다.

뉴스Q에는 뉴스 진행 도중 내내 동분서주하는 AD요원들의 열성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한 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뉴스Q는 우리 YTN 구성원 모두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뉴스입니다.

뉴스Q팀의 팀원들은 뉴스라는 제품을 아름답게 포장

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뉴스Q팀의 앵커와 PD, 엔지니어, 디자이너, AD는 여러분의 노력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뉴스Q를 더 많은 사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Q는 '바르고 따뜻한 뉴스'를 지향합니다.]

뉴스Q는 어느 편이나 무리의 이익에 치우치는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뉴스의 편집에 있어서도 사실 전달과 진실 추구를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를 위해 언제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스스로 오류와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생명과 자연 그리고 평화의 정신을 견지하려 합니다. 가능한 '올바르면서도 따뜻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위적인 뉴스 편집은 최대한 배격하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언론의 사명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고답적인 주제를 되새겨야 할 시점에서 있습니다.

[뉴스Q는 YTN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뉴스Q는 YTN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YTN은 지금 '보도의 위기',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충격은 과거 IMF 경제 위기 때 겪었던 '생존의 위기'와 비교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생존의 위기'입니다.

하루 빨리 이 어려움을 훌훌 털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의 원인을 냉정하게 찾아내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겠습니다.

뉴스Q팀은 YTN호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더 추상같은 자세로 뉴스를 엄정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강성웅 뉴스5팀장

병술년 개띠 시원의 포부

YTN

풍성하고 선명한 무지개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2006년은 개의 해입니다. 총명하고 사람을 잘 따르며 인간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동물이 바로 개입니다.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게 따스한 정을 전하는 애완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되어주는 맹도견, 눈썰매를 끌어주는 썰매견까지 개는 우리 생활과 참 가깝게 맞닿아있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늘 사람들의 주변에서 정을 나누고 도움을 주며 무거운 짐까지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인이 되고 싶기에 YTN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있어서 YTN은 간절히 원하는 선물을 전해 준 산타클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일 년 동안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며 착한 일을 하는 어린이처럼 방송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늘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매일같이 변하는 날씨를 실시간 정확하고 듣기 쉽게 전해줌으로서 시청자들에게 보다 알차고 정확한 날씨 정보를 전하고 싶습니다.

늘 곁에서 함께 하고 사람을 잘 따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애완견처럼 시청자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따뜻한 방송인이 되고 싶습니다.

또 내일의 날씨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눈이 되어 정

확한 기상정보를 전하고, 음악과 함께 전하는 날씨를 통해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악을 전공한 저에게 방송이란 그저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YTN과 함께 공유하며 이제는 성악가가 아닌 방송인으로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와 성악가는 자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다양한 각도로 세상을 표현해 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력과 인내를 통해 다듬어진 '양혜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풍성하고 선명한 무지개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단지 기상정보만을 전하는 캐스터가 아닌, 사람들에게 확장하고 맑은 하루를 선물하는 YTN의 기상캐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10년 후 2006년의 첫날을 회사에서 시작했던 그 때를 회상하며 뿌듯해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며, 2006년 365일 하루하루가 방송인으로서의 삶에 중요한 토대가 되도록 매순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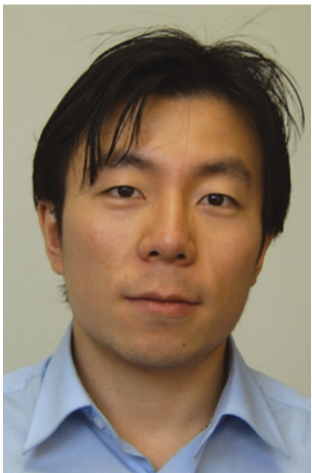
올겨울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무척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늘 건강하시길 바라구요. 2006년 한해도 행복하고 알차고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양혜경 기상캐스터

세계속의 YTN - 해외리포터에게 듣는다 ⑨

YTN

“우린 지금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고 있다”



YTN 인터내셔널 리포터를 시작한 지 6개월,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을 다시 들여다보니 부족한 부분만 생각나는 데도 취재를 통해 얻은 많은 재미난 추억들과 소중한 리포트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최소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된 점만

큼은 이 칠레란 망망대해에서 내가 건지기 시작한 열매가 아닐까 싶다. 특히 얼마 전 라고스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생각하면 초심자여서 용감했던 내 모습에 새삼 놀라울 뿐이다.

“우린 지금 세계적인 기술을 보고 있다.”

지난 10월, 아이템을 찾던 중 11월 달에 있었던 부산 APEC 정상 회담 참석차 칠레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담당 PD에게 안건을 제출했고 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기다리지만 하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대사관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까지도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넌지시 건네준 얘기는 “KBS, MBC 에서 대통령 인터뷰 한 번 해보려고 여기까지 왔었지만 한 달 이상 썩 기다리다가 그

냥 돌아갔었다”란 얘기가었다.

취재도 취재지만 오기가 생겼다고나 할까? 어렵다고 하는 이들이 많으니 꼭 성사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부터 칠레에서 맺은 인연들을 통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다가 대통령 명 친척뻘 된다는 분과 연락이 닿았다. 세계 어딜 가더라도 역시 인맥은 중요했다.

어렵사리 주선된 이는 한국으로 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 급인 인물이었다. 말 잘해야 된다는 그분의 당부 때문에 마음 굳게 다잡고 면담을 했다. 예상보다는 호의적인 태도 때문에 마음이 놓이다가 “카메라는 몇 대고 기종이 뭐냐?”란 질문에 뜨끔할 수밖에 없었다. 전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ENG 카메라보다 6mm 카메라를 쓰는 게 더 낫다고 설득하니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도 “OK, esta bien(그래, 좋아요)”하던 그의 말 뒤에 나왔던 건 미소뿐이었다. 칠레란 곳은 확답이 나오기 전엔 어떤 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라 두근 반 세근 반하면서 비서실장의 전화를 기다렸다. 전화소리와 그의 “OK” 사인을 받고 나서 느꼈던 뿌듯한 감정이란, 앞으로 벌어질 일도 모른 채 즐겁기만 했던 순간이었다.

인터뷰 당일, 6mm 카메라 두 대를 가지고 도우미 두 분과 함께 칠레의 대통령 궁인 모네다 궁을 찾아가다.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 궁 응접실로 향하다 보니 갑자기 긴장이 되었다. 역시 일국의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긴장되는 일이었다.

카메라를 세팅한 뒤 라고스 대통령이 나왔고 간단한 인사 후 곧바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통령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까지 같이 말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다행이었던 것은 관련된 다른 질문이 곧장 머릿속에서 떠올랐다는 점이었지만, 끝날 때까지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청취해보긴 대학 입시 수험능력 시험 때 영어 듣기 평가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다.

무사히 인터뷰를 끝내고 난 뒤 대통령이 던진 한 마디는 다시 한 번 나를 뜨끔하게 만드는 카메라에 대한 것이었다. “저렇게 작은 카메라로 전 세계에 뉴스가 방영 되냐?” “흠, 우린 지금 세계적인 기술을 보고 있다”는 대통령의 언급. 웃으면서 그렇다고 대답하긴 했지만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음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으리라. 성공리에 방영됐지만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스스로 곳곳이 평가를 내리곤 한다. “난 한국과 YTN 대표로 세계적인 기술을 과시하고 온 거야.”라고.

Bienvenido a Santiago(산티아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칠레 남부 지방을 여행하고 산티아고로 돌아오니 마치 산티아고가 내 집인 양 편안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 6개월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겠지만 최소한 내게는 YTN 인터내셔널 리포터로서 이 곳에 대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시간이 아닐까 싶다. 지역 전문가란 별 다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애착을 갖고 끊임없이 뛰고 알아보는 사람이 아닐까?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YTN 인터내셔널을 통해 많은 소식을 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산티아고 소식을 내게 물을 때 Bienvenido(환영합니다)란 말을 던질 수 있도록 말이다.

신준섭 칠레 산티아고 리포터

'N서울타워'...새로 태어난 서울의 상징

서울의 상징 '서울타워'가 7개월의 기간과 150억원을 들여 새 단장을 마치고 12월 9일 'N서울타워'라는 새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낮에는 첨단 디지털 시설과 공연장,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선 문화공간으로 밤에는 환상적인 조명이 어우러진 서울의 새 명소가 거듭난다.

전망존 >>>

전망대 5층 'n.Grill'

최고급 스테이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 'n.Grill'. 'n.Grill'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레스토랑으로 40분마다 한번씩 회전하기 때문에 편히 앉아서 서울의 동서남북을 만끽할 수 있다. 전망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좌석 배치로 만족도를 높였다.



전망대 5층 'n.Grill'



전망대 3층 '디지털 전망대'

60군데 장소 정보를 동시에 보여주는 첨단 디지털 망원경 4대와 LCD 모니터 32대가 설치됐다.

- 쇼킹 에지 : 전망대 가장자리 바닥과 천장에 거울을 붙여서, 여기에 서면 갑자기 허공에 뜬 기분이 든다.



전망대 3층



쇼킹 에지

전망대 2층 'SKY CAFE'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간단한 차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

- 하늘화장실 : 시원한 전망이 아름다운 전망 화장실이다.



전망대 2층 'SKY CAFE'



하늘화장실

전망대 1층 '한국'

한국 전통 요리를 맛 볼 수 있는 한식 패밀리 레스토랑 '한국'



전망대 1층 '한국'

광장존 >>>

광장 2층

- 이탈리안 레스토랑 : 간단한 맥주와 와인 이 있는 캐주얼 레스토랑.
- 멜티 스테이지 : 음악회, 영화시사회 등을 즐길 수 있다.
- 루프 테라스 : 저렴한 패스트 푸드와 음료를 들고 서울경관을 본다.



스위트리 플라자2층

광장 1층

- 푸드코트 : 자영업에서 즐기는 다양한 스낵과 샌드위치, 커피, 아이스크림 등 편안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 빛의 사위 : 사위꼭지를 돌려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만든 후 사진을 연출한다.
- Gift Shop :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상품과 기념품이 있다.



푸드코트 플라자1층



빛의 사위



Gift Shop

미디어존 >>>

- 미디어 존 : DVD, GAME 등 미디어 관련 전문 라이브러리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 미디어 공간.
- 푸레쥬르 카페 : 문화와 미디어 공간이 어우러진 카페테리아.
- 파빌리온 A B : 복합 문화예술 체험 전시공간으로 2개의 공연 전시홀로 구성돼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선보인다.



미디어 존



서울을 한눈에! 'N SEOUL TOWER' 서울의 중심에서 서울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N SEOUL TOWER' 뿐입니다.

'N SEOUL TOWER'는 첨단 탑승 예약 시스템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탑승순서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망대에 올라가기 전에 세계의 타워와 서울의 모습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실물보다 더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N SEOUL TOWER'의 디지털 전망대에서는 디지털 모니터 망원경, 32개의 LCD에서 서울의 과거, 600년 서울역사, 서울의 세계적 등 서울의 모든 것이 디지털미디어아트를 통해 펼쳐집니다.

한편 끝없이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쇼킹에지'는 전망대의 소릴과 진동을 선사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전망대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화장실인 하늘 화장실과 간단한 음료와 함께 여유로운 전망을 하실 수 있는 공간, 소장기념품을 판매하는 쇼핑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N SEOUL TOWER'

'N SEOUL TOWER'에서는 한국의 현대 작가들이 새롭게 시도 하는 다양한 서울의 예술과 문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플라자 1층에 있는 대형 LED에서는 CF감독인 이천우 감독이 준비한 'N SEOUL TOWER' 로고로 만든 작품, 로비로 내려가는 계단 벽에

는 변성훈 작가의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상징이 될 'N SEOUL TOWER'의 조형 작품들은 건축대 정광화 교수님의 작품입니다.

'N SEOUL TOWER'의 전신(全身)에는 꽃이 피는 모습을 빛으로 형상화한 '서울의 꽃'이란 작품이 전시되어 개화(開花)하며 플라자 1층의 가운데는 빛과 바람의 역동적 움직임이 있는 '빛의 갈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람자가 스스로 사위꼭지를 돌려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을 만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빛의 사위'도 광장 데크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N SEOUL TOWER'에는 공연과 전시, 그리고 문화 체험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로비에는 최신 영화 예고편이나 최신 뮤직비디오 등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존이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체험 학습에서부터 각종 전시회, 공연 등을 할 수 파빌리온 A, B편이 있습니다. 플라자 2층에는 작은 음악회, 영화시사회 그리고 방송촬영도 가능한 멀티스테이지가 'N SEOUL TOWER'를 방문하는 고객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색다르고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정기 공연으로는 금요 콘서트와 주말 영화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와 캐릭터를 만나보고 싶다면 플라자 1층의 캐릭터 & 포토를 방문해 보세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영화의 한 장면, 귀여운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사진, 그리고 'N SEOUL TOWER'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사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N SEOUL TOWER'의 기념품 샵도 문화의 공간입니다. 플라자 1층에 위치한 '새와 나무'에서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직접 디자인한 아트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으며 디자인 전문 업체인 mmmg가 디자인한 'N SEOUL TOWER'만의 기념품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망2층의 기념품 샵에서는 'N SEOUL TOWER' 캐릭터 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념품 샵의 새로운 기준이 될 'N SEOUL TOWER' 기념품 샵에서 즐거운 쇼핑시간을 가지세요.

즐거움 휴식공간 'N SEOUL TOWER'

'N SEOUL TOWER'에는 남산 정상에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플라자 1층에 위치한 글라스 테라스는 천정만 유리로 처리되어 있어 남산의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간단한 음료와 스낵을 드시면서 전망을 즐기실 수 있으며 우천 시에도 빗소리를 들으며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팔각정 광장에서부터 루프 테라스까지 이어진 산책로인 '하늘길'을 따라 걷다 보면 넓은 우드데크 위에서 여유롭게 서울을 내려다보실 수 있는 루프 테라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루프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전망은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편의점과 다양한 음식을 맛보실 수 있는 푸드코트, 그리고 한잔의 커피를 테이크 아웃할 수 있는 커피 & 아이스크림 코너가 플라자 1층에 있으며 플라자 2층에는 낮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에는 연인과 함께 간단히 맥주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스위트리가, 로비에는 푸레쥬르 카페가 여러분에게 여유로운 휴식을 안겨 드릴 것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레스토랑, 최고급 스테이크를 맛보며 가만히 앉아서 서울의 동서남북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회전 레스토랑 n.GRILL 과 아름다운 서울 풍경과 함께 맛보는 맛깔스럽고 풍성한 한국의 전통음식, 한국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한식 패밀리 레스토랑 한국은 한국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한식 패밀리 레스토랑을 꼭 한번쯤 소개하고 싶은 명소가 될 것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YTN사장과 여러 임직원들, 특히 전무부국장님을 비롯한 서울타워 운영부 파트너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현수 부장 (CJ N CITY)

